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폐기를 토양오염

부처님을 비롯한 초기 교단의 수행승들은 세속사람들이 쓰레기장이나 무덤에 버린 형질조각이나 헌 옷을 주워서 그것을 깨끗이 빨아서 가사를 만들어 입었다. 이 가사는 통을 닦는 형질과 같으므로 분소의(糞掃衣)라고 했으며, 여러 버려진 형질조각을 기웠으므로 남의(納衣)라고도 한다.

사실상 형질조각을 기워 가사를 만드는 것은 버려진 유정물의 재활용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는 대지대비의 극치에서 나온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옷을 깎는 일은 만유의 연기론적인 연관을 실제 관찰하는 위빠사나의 수행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발우공양은 생명공동체인 신성한 대지를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길은 통찰 위에서 나온 환경 윤리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적인 이러한 생활

윤리가 사찰에서 오랜 세월 지켜져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후에 전통적인 불교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전 국토는 쓰레기 더미로 뒤덮이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89년에 벌써 개인별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2.2kg로 세계 1

위 7백대분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그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7백30억원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쓰레기는 매립 방법으로 처리되는데, 연간 매립되는 2천6백만여톤의 생활쓰레기는 1톤당 5백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 매년 상당한 국토를 쓰레기 매립지로 둔갑시킨다. 쓰레기에는 연탄재와 주방용 쓰레기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종이, 나무, 의류, 비닐, 일회용품이 차지하며, 그밖에 불연성의 유리, 금속, 석면등의 건축자재가 차지한다. 이러한 생활 쓰레기가 소각되면 대기를 오염시키고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경제규모의 확대와 대량생산 소비사회에 따른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절제한 인간욕구의 부산물인 폐기물은 자연을 오염시키고 동시에 인간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고 하지만 소규모이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된다고는 하지만 처리능력이 부족해 대량으로 아산 등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폐기물에서는 생태계에 아주 해로운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



있는 실정이다. 산업폐기를 매립지역이나 생활쓰레기 매립지역의 주변에서는 세계적으로 토양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집단 피부병, 각종 암, 유산들의 증가, 기형아나 기형가족의 출산, 초목의 고사, 어패류의 폐축을 등이 뒤따르고 있다.

생활·산업쓰레기 마구버려 땅·지하수 오염 집단피부병·초목枯死등 잇따라

위의 쓰레기 발생 대국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2.0kg, 일본은 1.0kg, 영국은 0.9kg, 대만은 1.6kg, 홍콩 0.8kg, 이탈리아는 0.7kg 이다.

특히 당시 서울의 개인당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2.8kg로서, 유례 없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줄어들었지만 수치는 서울만도 매일 8천 트럭 3

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매립되면, 그 지역과 인근의 토양의 미시·거시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하수를 오염시켜 불모의 땅으로 만든다.

특히, 산업폐기물의 경우도 88년 현재 벌써 하루 5만1천53톤(4톤트럭 1천2백76대분)이나 되고, 연간 2천1백만톤으로 83년 이후 연평균 12.8%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현재 업체의 자체 폐기물

속과 폐유, 알카리 등의 유기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절반가량의 재생 이용 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폐기물이 땅속에 매립되고 있어, 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89년만 해도 하루 평균 산업폐수량도 6백50만톤이나 되며, 연평균 20%이상 증가하고 있어, 하천의 수질 오염에 따른 전 국토의 토양오염은 토양의 산성화를 수반하며, 가속화되고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가사일에도 바쁜 주부보살들이 열마전 수행활동의 차원에서 환경도임을 만들고 우리 환경을 지키고 나갔다. 환경운동이 생활속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실천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

를 거침없이 파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 많은 노력과 인내로, 훼손된 자연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환경을 지키자는 운동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주의 주제

환경보호

가정의 작은 실천이 첫 걸음

다. 육식의 세수비누는 한쪽 면을 은박지로 싸서 남비를 쪄고 있다.

군포에 사는 박재순보살(46)은 폐식용유를 모아두었다가 이웃 불자들이 함께 비누를 만들어 쓰는 한편 삼부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두 불자 모두 "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은 가정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을 지키는 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인간의 끊임없는 욕구와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

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 김자경간사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생활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면서도 "불자 개개인의 정성과 실천이 모여서야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반기워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나와 내가 아니라 말씀하셨다. 또한 "보살은 마땅히 자비심으로 세상만물을 여여생각하라"고 가르치셨다.

인간과 모든 만물이 상의 상관 관계속에서 공존공생하고 있다는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전북 고창 선운사의 대웅전. 도솔산에 자리잡은 선운사에 신라 진흥왕과 소금만드는 법을 가르쳤다는 백제 고승 검단선사의 친경설화가 전해온다.

신행수첩

고승 숨결찾는 명찰순례 21일 선운사 도솔암으로

고승들의 숨결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귀중한 불교유적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95 명찰순례'가 30회인 이번에는 4월 21일 전북 고창 선운사로 떠난다.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577)에 검단선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대웅보전·금강관음보살좌상·지장보살좌상 등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 대가람이다.

또한 선운사 담사와 함께 수길길 버림에 높이 약25미터 폭 10미터의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양각 석가여래좌상이 있는 도솔암에 둘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새롭게 새기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출발은 오전 7시30분 한국일보사 주차장, 회비는 2만2천이다. (02)724-2615-6.

가정에서 실천하는 불교인권의 기금전

가정에서 실천하는 불교인권의 기금전

가정에서 실천하는 불교인권의 기금전

가정에서 실천하는 불교인권의 기금전

읽고 쓰고 셈하기 배워요

읽고 쓰고 셈하기 배워요

읽고 쓰고 셈하기 배워요

읽고 쓰고 셈하기 배워요

연변에도 불보살 자비가... 반야회 도문시에 화엄사 건립 추진

연변에도 불보살 자비가... 반야회 도문시에 화엄사 건립 추진

연변에도 불보살 자비가... 반야회 도문시에 화엄사 건립 추진

연변에도 불보살 자비가... 반야회 도문시에 화엄사 건립 추진

사자좌 있는 약사여래불 천황사 '보물' 기념법회

사자좌 있는 약사여래불 천황사 '보물' 기념법회

사자좌 있는 약사여래불 천황사 '보물' 기념법회

사자좌 있는 약사여래불 천황사 '보물' 기념법회

'자기발견의 길' 특강 정토법당, 24일부터

'자기발견의 길' 특강 정토법당, 24일부터

'자기발견의 길' 특강 정토법당, 24일부터

'자기발견의 길' 특강 정토법당, 24일부터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생활속의 불교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 보라고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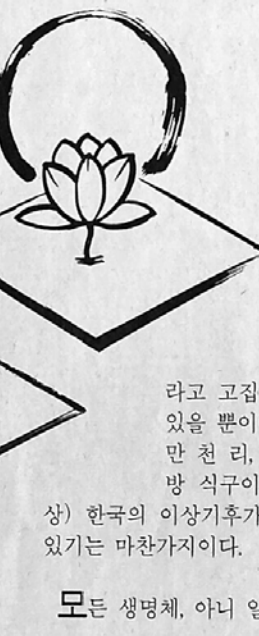
만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상대성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서 주고 받는 관계 속에 있다. 혼자서 독립불존 식으로는 존립할 수도 없다.

로빈슨 크루소가 절해고도에서 혼자 살았다고 하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다. 동물·식물·공기·토양·태양·달... 등과 어깨동무한 채로 살았던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매 순간순간 우주 속의 수많은 도반들과의 공생(共生)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별적인 '나'를 고집한다. 이 건 내가 혼자서 했다, 이것은 나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가령 내가 돈 한 푼 벌었다고 할 때 그것이 어찌 나 혼자만으로 가능했겠는가.

종이·화폐·잉크를 만든 사람, 화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거래의 상대방 등이 없었다면 어찌 한 푼



인들 벌 수 있었겠는가.

쌀 미(米)자는 팔십팔(八十八)의 합성어라 한다. 쌀 한 톨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든여덟 번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혼자 살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 먹으며 함께 살아간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뿐이 아니다. 동물, 식물, 태양, 물, 토양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세상 일 중에 내가 했다, 내가 했다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오직 상대성이 있을 뿐이다. 실사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천 리, 만 리 떨어져 있다 한들 공생관계에서 보면 모두가 한방 식구이다. 남미 페루 연안의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엘니노 현상) 한국의 이상기후가 찾아 오듯이, 비록 우주 어느 구석이라도 한 통 안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모든 생명체, 아니 일체의 유·무정물은 공생의 관계요, 공용·공체·공식의

관계이며 다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나만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관념의 세계지정정 우주 법칙으로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나 혼자'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지·수·화·풍을 다 제 손으로 구해서 살아보라.'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 로빈슨 크루소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전체가 다 거들어 주니 내가 산다. 고로 나도 전체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나와 이웃, 자연은 언제나 둘이 아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진흥APT 803동 1201호
임희석